

금강 백제 최후를 실어나른 역사의 강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dangkb@hanmail.net)

북으로 흘러 수태극 이루는 배류(背流) 3대수

대왕포(大王浦)의 달은 속절없이 가을 밤이요,
정사암(政事巖)의 꽃은 몇 봄이고,
오늘은 두서너 집 삭막하지만,
당시에는 10만호가 태평을 즐겼네.

옛 시인이 금강 - 부여 백마강을 노래한 것이다.

강의 길이가 4백여km에 달하는 금강은 낙동강, 한강에 이
어 나라 안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그러나 끝내 소백산맥
과 차령산맥을 넘지 못한 채 서울로 향하여 올라가다가 공주
에서 서남쪽으로 활처럼 휘어져 황해로 들어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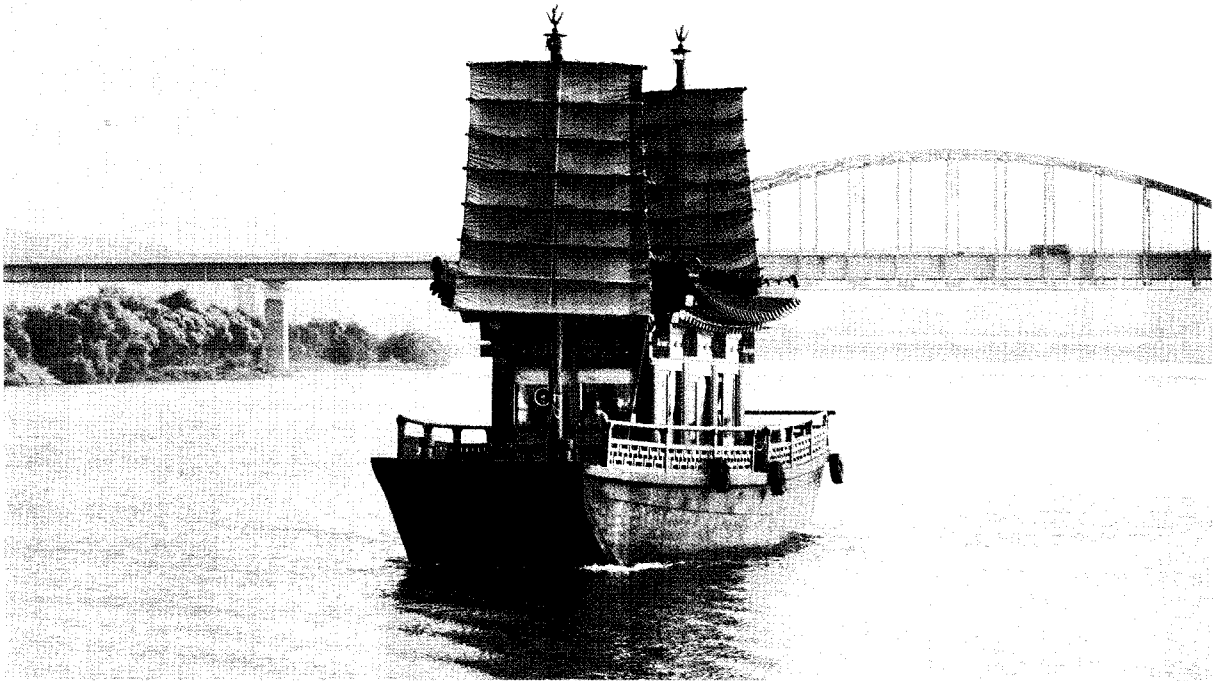
그래서 고려 태조는 차령 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은 반역
의 성향이 있다하여 중용하지 못하도록 「훈요십조」에 남겼
고, 조선왕조에서는 낙동강과 함께 궁궐을 등지고 흐르는 배
류(背流) 3대수로 꼽기도 하였다. 생각해 보면, 강물의 흐름
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여 흐르는 자연의 섭리이자
최고의 미덕임에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사
와 민족의 상처로 남긴 것은 강물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소
중한 교훈이라 할 것이다.

강물의 흐름대로 역사도 흐르는 것인가. 갑오년 동학 농민
운동 때에는 수십만의 농민군이 금강 물처럼 서울을 향하
여 올라오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패전하여 시산혈하(屍山血
河)를 이룬 채 물러나게 되는 비운의 역사가 마치 금강의 흐
름과 통하는 것 같다.

금강은 법정명칭인 금강(錦江) 이외에도 백마강(白馬江),
웅진강(熊津江), 적등진(赤等津), 공주강, 백강(白江), 백촌
강(白村江), 진강(鎭江), 심천(深川)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강에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 강물이 지닌 사연도 많고
역사도 많다는 뜻일 것이다.

멀리 남쪽 전라북도 장수(長水)의 수분재(水分-)에서 발
원한 금강은 진안에 용담호를 만들고, 북상하여 무주-영
동-옥천-대전을 거치면서 다시 대청호를 만든다. 신탄진(新
灘津)에 이르러 북류하는 갑천을 합하고 부강을 거쳐 계룡
산을 휘돌아 공주로 들어간다. 공주에서 방향을 서남쪽으로
돌린 후 부여에 들어가서 백마강이 되고, 강경을 지나 장항
과 군산 사이에서 진강(鎭江)이 되어 황해바다에 몸을 푼다.

발원지가 되는 장수는 그 이름부터가 산이 높고 물이 길
다(山高水長)의 뜻이니, 이미 금강이 먼 길을 흘러 갈 것임을
예고하였고, 분수령이 되는 수분리는 원래 우리말로 '물뿌



랭이라 불렀으니, 금강 물의 뿌리 - 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며, 금강과 섬진강으로 물이 나누어지는 분수령(分水嶺) - 수분(水分)임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금강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름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옥천(沃川)이나 신탄진(新灘津), 심천(深川), 공주(公州)와 같은 이름들이 모두 금강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백마강의 '낙화암 삼천궁녀'는 후대에 잘못된 것

서기 660년 7월 18일, 숲고개를 넘어 황산벌에서 백제의 5천 결사대를 무찌른 김유신의 신라군과 당나라 소정방이 거느린 13만 대군이 황해를 건너고 금강을 거슬러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니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5방 37군 7백여 성 76만여호를 거느린 백제는 7백여 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사비성이 무너질 때 아버지규환의 피바다 속에서 도성은 7월 밤 7일 낮을 철저히 불태워졌다. 무지막지하게 파괴당하여 지상에 버티고 서서 남은 것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제 공적을 새긴 5층 석탑 하나뿐이었다.

소정방은 8월 17일 의자왕과 왕자 4명, 대신 93명, 그밖에

남녀 포로 12,807명을 배에 태워 금강을 내려가 당나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멸망한 백제 최후의 비극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 준 곳이 바로 금강가의 부여 낙화암(落花岩)이다.

금강이 부여에 이르면 백마강(白馬江)으로 불리워지는데, 그 백마강 천야만야하게 솟은 벼랑을 낙화암이라 하고, 그 바위 위에는 「백화정(百花亭)」이라는 정자가 서 있다. '낙화'는 꽃이 진다는 뜻이니, 그때 당나라 군사들에게 쫓겨 온 궁궐의 부녀자들이 이곳에서 강물로 뛰어 내렸기에 붙여진 이름이요, 백화정의 '백화'는 그때 순절한 여인들을 '백제(百) 꽃(花)'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흔히 '삼천 궁녀'로 알려진 낙화암의 비극에 대하여, 백제 말기 의자왕의 궁녀 수는 분명 후대에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백제 멸망 당시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상한 징조들과 함께 3천 궁녀는 백제 멸망을 필연(必然)의 역사로 돌리려는 후대의 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령 조선조 때에도 궁녀의 수가 1천명을 넘었다는 기록이 없다. 중국에서 황제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일후(一后), 육궁(六宮), 삼부인(三夫人), 구빈(九嬪), 이십칠세부(二十七世婦), 팔십일 어처(八十一御妻)를 거느렸다고 하니 그 숫자는 127명에 불

과하다(물론 공녀를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후궁 '삼천'이라는 숫자는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유명한 「장한가(長恨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시가 워낙 유명하여 널리 애송되었으므로 이곳 낙화암에서도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承歡侍宴無閑暇 (승환시연무한하)
春從春遊夜專夜 (춘중춘유야전야)
後宮佳麗三千人 (후궁가려삼천인)
三千寵愛在一身 (삼천총애재일신)

(전략) 밤낮 없는 잔치로 상감을 환락에 사로잡고서
봄 따라 봄에 놀고 밤마다 상감을 독차지하니
후궁에 아릿다운 공녀가 삼천 명이 있으되
삼천 명에게 배줄 사랑 한 몸으로 받았네...(후략)

이것은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 양귀비가 현종이 거느린 3천 공녀에 대한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백제 의자왕 대에 3천 공녀가 낙화암에서 강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백낙천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삼천대천세계'니, '삼천리 강토'니, '삼천포'와 같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삼천'이라는 말은 많은 숫자를 뜻하면서 우리 입에 익은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에 발굴되고 있는 부여의 백제 궁궐터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삼천'이란 숫자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백제의 의자왕과 귀족들은 당나라로 끌려가서 천수를 누리다가 죽어서 낙양성 북망산에 묻혔는데, 백제 부녀자들과 공녀들은 천길 벼랑에서 몸을 던져 매서운 백제 여인의 정절을 보여주었다. 자결은커녕 적국에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바치는 치욕을 감수하면서 당나라로 끌려가 육된 목숨을 부지하였던 왕과 귀족들을 어찌 낙화암의 여인들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래서 부여에서도 특히 낙화암을 찾는 이가 많은 것은 이곳 벼랑에 올라섬으로서 백제 여인들의 서릿발 같은 정신

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백마강은 소부리 마을강, 금강은 큰 강을 뜻하는 이름

금강의 부여지방 이름인 백마강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세종실록>에는 소정방의 조룡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이 강에 다다르니 별안간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므로 이는 필시 용의 조화라 하여 흰 말(백마)을 미끼로 용을 낚아서 강을 건넜으며, 그로 인하여 이 강을 백마강이라 하고, 용을 낚았던 바위를 조룡대(釣龍臺)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부여 조룡대 전설은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로서 이 강의 이름이 <일본서기>, <당서>, <구당서>, <삼국사기> 등에 백강(白江)으로 나오며, 백촌강(白村江)은 <일본서기>에, 백마강(白馬江)은 <세종실록>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백마강의 원래 이름이 사비강(泗泚江)이요, 부여는 소부리(所夫里)인데, 백(白)의 새김도 역시 '숯'삼이 되어 같은 발음을 알 수 있다.

- 백(白 : sarpi)강 - 사비(泗泚 : sapi)강
= 소부리(soburi)
- 백촌(白村)강 = 흰 마을 강 - 백마(白馬)강
= 흰 말 강

으로서 촌(村) = 마(馬)이며,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백마강은 '소부리마을 강'이라는 뜻이 된다. 백마강은 백제의 강이다. 백제의 종말을 목격하였고, 이 강변에 메아리치던 울음과 탄식을 들었으며, 그 종말을 실어 나른 강이기 때문이다.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공주에 닿는다. 곰나루에서 비롯된 공주의 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득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국모신(國母神)이었다. 처음 어둠속에서 썩과 마늘을 먹으며 시련을 이겨낸 암곰이 여성(熊女)이 되고, 환웅과 혼인하여 시조인 단군을 낳았기 때문이다.

공주의 옛 이름인 고르나루(곰나루)웅진(熊津)은 곰토텐을 가졌던 북방민족, 고조선의 민족 이동이 남쪽으로 이어져



왔음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다.

옛날 한 남자가 공주의 연미산에 올라갔다가 암곰에게 붙들려 굴속에 갇혀 사는 동안 암곰과 관계하여 새끼까지 낳았다. 어느 날 암곰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남자가 금강을 헤엄쳐서 강을 건너 도망하였다. 마침 암곰이 돌아오다가 이것을 보고 급히 굴로 가서 새끼를 가져다가 남자에게 보이면서 소리쳤으나 남자가 못 본 체하고 강을 건너 왔더니, 암곰이 울면서 제 새끼를 강물에 던지고 저도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 후 공주에서는 이 나라에 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곳을 곰나루 또는 웅진(熊津)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곰'을 국어학적으로 정리해보면 곰(가마), 곰(고마, 고모), 검(거마, 거머) 등이 모두 '곰' 계열어로서 유현(幽玄)함, 신성(神聖)함, 큼(大), 많음(多) 등을 나타내는 말이며, 한편 방위상 뒤(後)와 북(北)을 뜻하는 것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큰 나루 = 고마(koma)나루/곰(kpm)나루/웅진(熊津)

큰 고을 = 곰(kom)골/공주(公州)

큰 강 = 곰(kom)강/금강(錦江)

그러므로 곰나루-금강-공주의 세 이름은 모두 '곰'에서 비롯되었고, '곰'의 크다는 뜻을 함축하는 말이다. 곧 금강의 '금(錦)'이나 공주의 '공(公)'이 '곰'의 사음(寫音) 표기로서 '큰 강', 또는 '큰 고을'을 나타내는 것이다.¹⁾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궤멸된 백제는 두 번 망했다. 사비성의 함락에 의한 것이 그 첫 번째 멸망이지만, 중국 역사서인 <송서>, <양서> 등에 기록된 백제의 중국 북평 일대 지배 사실, 그리고 오늘날 백제의 문화유적과 업적 등이 온전히 평가되고 알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백마강 달밤에..."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금강의 이야기는 언제나 슬프다. ●

1) 영산강의 나주지역 옛 이름이 금강(錦江)이며, 동진강도 역시 금강(錦江)이라는 옛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모두 '큰 강'이라는 우리말의 사음(寫音) 표기라고 보고 있다.